

정치의 계절에 생각하는 의회의 典範

신형식 편저 「영국의회」

배병삼

경희대 강사 · 정치학

일본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장관이 애꾸였던 모양인데, 야당의원들이 장관을 야유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 어려운 자들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라고 신세상의 결함을 물고 늘어졌던 모양이다. 그러자 그 장관 가라사대 “一目瞭然!”이라고 일갈했다. “한 눈에 환히 알 수 있다”는 四字成語를 “한 눈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비틀어, 공격한 자들을 무색케 한 멋진 승부수였던 셈이다.

애꾸눈 장관의 기백과 풍도를 얼핏 짐작케 하는 일화이지만, 역시나 의회라는 ‘말의場’이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政治家라고 하면 웬지 음습한 마키아벨리즘적 냄새가 풍기는 데 반해, 議會主義者라고 하면 웬지 사려깊고 진지하며 열정적인 정치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도 우리의 의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건전한 정치풍토에 대한 갈망이 혼재된 思考의 표출일지 모른다.

푸줏간의 고기 무게를 재듯 단순한 물리력-남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정치의 전부라고 믿는 자들의 눈에는 아마 “펜이 총칼보다 강하다”는 금언에 감추어진 심오한 통찰력은 몇 밤을 자고 깨어도 이해되지 못할 터이다. 그러나 정치란 것이 종내 사람 살아가는 일의 총화라면 藝術 비슷한 것이 되기도 한다. 사람에게 대단한 도회풍의 멀쑥이가 있고, 피죄죄한 촌뜨기가 있듯 정치도 역시 나라마다 ‘쓰레기통의 장미’ 같은 것이 있고, ‘멋진 화병에서 한껏 아름다움을 제대로 발휘하는 장미’ 같은 것도 있는 것이다.

“토론이 내란을 막는 유일한 길”

의회라면 누가 뭐래도 영국의회다. 그것은 적어도 의회에 관한 한, 남이 닦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남이 따라올 길을 닦은 주체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도 이제는 국회에서 하겠다고, 의회주의의 새 시작을 알리는 근자에 들어 영국의회는 침을 흘리며 공부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튜아볼 계제는 되지 싶다. 따라서 이즈음 간행된 신형식 편저 「영국의회」(김영사 刊)는 좋은 참고서가 될 책이다. 이 책은 “순수운 글, 비장한 序文”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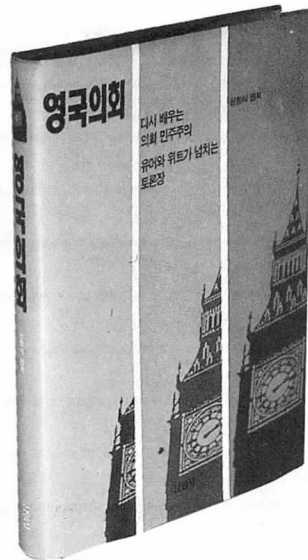
편저자는 중년의 나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3공화국 시절 건설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중견 직업 정치가이다. 그러나 아서라.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즈음에 어디 한자

리 해볼까 기웃거릴 의도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여겨서는 안될 일이다. 그는 이미 제작년 고인이 된 사람이다. 跋文에 제씨들이 추모의 념으로 시대를 잘못 만난 의회주의자임을 증언하고 있거니와 공화당 정치에 치를 떠는 나이 든 독자일지라도 서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고인의 명복부터 빌 일이다. “1991년도 저물어 간다. 체중도 현저히 떨어지고 기력도 쇠잔해지고 있다. 처칠이 노후에 그랬듯이 이 책의 머릿말도 동생으로 하여금 대필하게 한다.”

단언컨대 이 책은 정치학 교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제마냥 영국의회의 일상과 관습 그리고 역사, 뿐 아니라 의회를 둘러싼 일화들을 가려운 곳 긁어주듯, 평이하고 재미나게 서술한 ‘가볍게 읽을 책’이다.

편저자는 글속에서 “의회는 프랑스어로 파르르망(parlement) 즉 지껄이는 곳(parler)이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다. 의회란 기본적으로 말의 시장이다. 물건이 시장을 벗어나 교환되는 곳이 암시장인데 암시장이 창궐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듯이 말이 시장을 잃고 뒤에서 궁시렁거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라를 배회하는 악령이 되고 급기야 권력의 등뒤에 비수를 꼽게 마련이다. 그래서 議會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그 자체이다. 아니 제대로 된 의회라면 그것은 말과 글로 표현되는 文明의 공장이다.

그렇다면 의회는 한 나라 정치의 척도일 뿐 아니라 그 나라 문명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딴 건 몰라도 “토론이 내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선진적이다. 아니 의회와 선거는 그 자체 ‘칼잡이 문화’의 필연적인 소산이었던지도 모를 일이다. 선부른 문화론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회 의사당에 아직도 그려져 있는 여당과 야당을 구분짓는 ‘스워드 라인’(옛날에는 의원들이 칼을 차고 의사당에 들어왔는데 격론과정에서 격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를 금하기 위해 칼이 미치지 못할 DMZ를 설정한 것이 스워드 라인이다.)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유명한 금언, ‘총탄(bullet)에서 투표(ballot)로’ 같은 예들은 토론과 선거의 간절한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겠기에 그렇다. 목숨과 관련된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되었을 때만이, 흡스의 말따마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



쟁상태”가 보편적이었을 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도 살아서 문제를 해결할 피를 내지 않을 수 없겠기 때문이다.

‘떠들기’가 나라 일 바로잡는 일

그 필요성의 기원이야 어쨌든 영국의회는 떠드는 재미를 극대화시킨 곳이며, 떠들어서 나라 일을 제대로 만드는 곳이다. 떠드는 재미를 극대화시킨 곳이라는 의미는 의사당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국 의사당은 의원들이 폭신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의원들 모두가 들어서면 뒤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근 1/3에 가까울 만큼 비좁고 빼곡하다. 2차대전 후 독일의 폭격으로 의사당을 재건해야 했을 때 옛 건물대로 복원하자는 의견을 냈던 처칠은 공간이 넓어지고 의원마다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앉게 되면 이야기할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개회식이나 議案에 대한 투표 때를 제외하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들은 기껏 반이 될까 말까인데 이 빠진 자리가 승승한 의원석을 보고 연설하는 것은 맥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이 써 준 원고를 읽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대화의 재미를 잘 아는 자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왜 있지 않은가. 회회덕거리며 재미나게 이야기하는데 불쑥 교과서적인 공자님 말씀을 해서 대화에 초를 치는 사람들 말이다.

떠들어서 나라 일을 제대로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는 영국의회의 특징인 질문 시간(question time)에서 잘 나타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 반에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처음 한 시간이 질문시간으로 총당된

다. 이 시간동안에는 의원이면 누구나 어느 장관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 원론적인 1차 질문과 답변 다음에는 보충 질문이 덧붙여지는데 여기서 온갖 질문들이 터져 나온다. 물론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발언 취지와 목적은 갖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개선해 보고자 하는 성실한 의욕에서, 자신의 이름을 신문에 내기 위해, 자신의 원내 활동상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부 차관이라도 노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무엇이고 묻고 싶어하는 버릇 때문에, 심지어 자신도 잘 모르는 막연한 동기에서.” 그러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관의 답변만은 확실히 해야 한다. 저자는 이것이 영국의 부패를 막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비판에 놓여질 때 긴장하기 마련이고, 그 긴장은 공식사회의 나태를 척결하는 소금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극히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떠들기’가 나라 일을 바로 잡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당 후보가 그러지 않던가. 행정만 잘 다독거리려도 아파트 값 3분의 1은 내릴 수 있다고. 국민의 이름으로 막 떠들어 대는데야 제 지적 자랑하려는 기념물 같은 것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편저자는 영국의회의 성격은 입법부가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회 되돌아보게 하는 타산지석

짐작컨대 우리의 국회가 또 문을 열면 우리가 뽑은 의원들의 불성실과 무지에 혀를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똑똑한 의원들도 바보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구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歲費를 얼마나 받아 먹는데 의사당에서 즐기고 있어”라고 꾸짖고 나서 “정치가란 녀석들은 다 그래”라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즐겁게 될까를 생각해 하는, 이른바 문제의식을 이 책은 전해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읽을거리만은 아니다. 가볍게 포장된 가운데 어느 정치학 교과서보다 우리의 의회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의원들 뿐 아니라, 의회의 사무적 요원들이 특히 읽어 보아야 할 책으로 보인다.